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순근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

주위를 돌아보는 일들이 각자의 소속된 곳에서 소리없이 이루어지기를

1993년도 이제 한달이 남았다. 부푼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할 때와는 달리 누구든지 한 해를 보낼 때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오락가락하게 한다. 한해를 돌아볼 수 없는 과거로 묻어버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마치고 또 한해의 끝에 와 섰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우리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

교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마무리와 신년도 계획으로 바빠지게 된다. 이미 11월 첫주에 각 위원장 및 부장을 발표했고, 내년도 신입 사리집사와 권찰 후보자를

발표하고 그 교육도 마쳤다. 또 교회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별들도 한 해의 마무리로 부산한 모습들이다.

특히 금년은 우리 교회로서는 설립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다.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새로운 40년을 맞이하고자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와 결실의 행사들을 가져왔다. 숨가쁠 정도로 많은 행사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감하면서 금년 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금년 한 해의 계획과 실행, 차이가 난 이유, 하나님 앞에서 의미있게 살았는지, 진정으로 마음에 합한 봉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한 해 살아온 만큼의 영적 진보가 있었는지 등을 돌이켜보며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마지막 한달은 중요한 것이다.

시편기자의 말과 같이 세월은 신속히 그리고 날아갈 듯이 가는데 우리의 삶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기에 한해 한해를 의미있고 소중하게 보내지 않으면 어느덧 다 살아버린 그래서 더 이상 살 날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곧 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 12:1)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바라보고 많은 해야할 일 가운데서도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는 일들이 각자의 소속된 곳에서 소리없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개인도 억지로라도 여유를 내서 기도원이나 조용한 곳을 찾아 정리하며 한 해를 보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실패를 새해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의 작은 성공을 새해엔 더욱 큰 성공으로 열매맺기 위하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눅 13:8).

◀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감하면서 금년 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해를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얼마나 교회중심의 생활을 해왔는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각 교구별
새신자 환영 및 연말모임

금주 및 다음주에 새신자 환영 및 연말모임을 갖는 교구는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교구의 식구들은 잘 기억하였다가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간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11월 29일(월)
제 16교구, 오후 7시, 만나홀
- 11월 30일(화)
제 15교구, 오후 6시 30분, 만나홀
- 12월 5일(주일)
제 5교구, 오후 6시 30분, 만나홀
- 12월 5일(주일)
제 21교구, 교구모임 후, 메추라기홀
- 12월 7일(화)
제 4교구, 오후 6시 30분, 만나홀
- 12월 9일(수)
제 19교구, 오후 6시 30분, 만나홀

93년도 하반기 감사실시

12월 5-26일, 선교관 404호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최대원 장로)은 93년도 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주일) ~ 26일(주일)까지 주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까지, 수요일 오후 1시 ~ 3시 30분까지 선교관 404호에서 실시하게 된다. 감사 해당 부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기간중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랑의 빛 찾기 음악회
할렐루야 찬양대 출연

12월 4일, KBS홀에서

사랑의 빛 찾기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사랑의 빛 찾기 음악회에 우리 교회의 임마누엘 찬양대가 출연한다. 이는 사랑의 빛 찾기 운동본부가 개인수술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개인수술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4일(토)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냅시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등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1993년 11월 14일(주일) - 12월 5일(주일) 17:00까지
- 접수시간 : 매일 오전 9:00 - 오후 6:00
- 접수장소 : 사무국(총무과)
- 접수종류 : 성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기타.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선교위원회 사무실 (Tel 552-8200(교) 357-8)



제2회 충현 찬양합창제 91년도에 처음 열렸던 충현 찬양합창제가 지난 11월 20일(토) 오후 6시부터 본당에서 열렸다. 예배시간에 함께하는 8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핸드벨이 참여한 합창제는 출연 찬양대가 각각 두 곡씩 찬양했다. 특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열렸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전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성도가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다. 그러나 출연자나 참석자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1.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올무를 씌워 제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당신이 지금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근본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도리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나 아니면 인위적인 인간으로부터의 세례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으로 답변하심으로써 저들을 역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난처해진 이들이 모른다고 답변하자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심으로 일단 저들의 예봉을 꺾으신 후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논쟁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간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신적인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저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질문과 비유를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

교훈 두 아들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나오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기는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충격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은 첫째로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을 책망하려는 데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회개한 자에게는 그들이 바를 창기와 같고 세리와 같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3. 두 아들

첫째로 맏아들이 한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아버지여 가겠소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여'라는 말은 맏아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맏아들은 당시의 종교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와 회원들을 뜻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현대의 수많은 교인들,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의 가겠소이다'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맏아들은 우선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없는 신앙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고백을 할 때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혹은 주기도문을 외우며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그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처럼 입으로만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며 전성으로 하는 신앙고백은 사실 신앙고백이 아닙니다.

둘째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을 때에 둘

째 아들은 '아버지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둘째 아들이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잃소이다"라고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일반적인 행동과 사고입니다. 인간들은 둘째 아들처럼 굉장히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충헌강단



두 아들의 비유 (마 21:23-32)



신 성 중

<목사·영화장>

뜻을 거절해놓고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을 핑계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죄를 짓다가 영영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후에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지금 돌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4. 두 아들의 비유가 주는 교훈

첫째는 우리는 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역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53억에 살고 있는 지구촌에 5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교학에서는 미전도족속(Unreached People)들이 전인구의 40퍼센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서 일해야 할 포도원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의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포도원의 일이라든지, 내 직장, 내 유익, 편안함, 내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아들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애'라는 말은 '아들아'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들아' 하시며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미 활을 떠난 화살이고, 내일은 나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나에게서는 지금 해야 할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악인들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 했습니다(26절).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을 세리와 창기와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죄인시하여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는 저들의 믿음이 스스로 거룩한 택민이라고, 종교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보다 낫다고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비교입니까? 그러나 이 비교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합니다. 이 비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진정한 믿음의 결과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축복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또 이 비교의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을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애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데 맏아들처럼 입으로만 '예, 가겠소이다. 예, 보내겠소이다' 대답만 해놓고 행하지 않은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비록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 우리들이 나중되는 일이 없기를,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워 숨는 자가 우리 중에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주님이 죄를 씻어주는 빛나는 면류관을 다 받아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과장치



물을 여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과장'이라는 것이 있다. 오존을처럼 공해가 심한 때에는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과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과장치는 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이 여과기의 기능을 교회가 한다. 심지어 오라까지 여과해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교회가 신앙문제도 제대로 여과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교인들에게 가지 말아야 할 데도 가고, 믿지 말아야 할 것도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 적어도 교회는 그 국민의 가치관만은 여과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따지고보면 오늘날의 황금만능주의나 인명경시사상이나 환경오염 등은 교회가 국민의 가치관을 여과해주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글 / 신성중 목사

할렐루야!

충현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
는 목사님 그 외에 여러 교역자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일꾼들, 성도
님들 주안에서 평안하시기를 L.A
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개포·삼풍구역에서 89
년 11월말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
는데 벌써 네번째 크리스마스를 객
지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후 매번 한번도 거르지 않고
'주간충현' '만나' '주보' 등등 귀한
인쇄물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
사한지요. 인사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받을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움이 크
던지 죄송스럽기까지 하답니다. 후에 본교
회에 다시 돌아가 열심히 일하며 보답하
리라 다짐해 보며 한 활자도 놓치지 않고 유익
하게 이용하며 기도제목으로 함께하며 치뤄
진 모임이나 은혜스러운 행사에도 빠진 것
(참석치 못함)을 애석해 하면서 읽는답니다.

써주신 말씀들을 바쁜 이민생활에서 영적
인 좋은 지침서로 삼고 서로 이웃과 나눠 읽
기도 하지요. 93년 계간충현 봄호의 김창인
목사님 시편강해 57편 "위험한 때에 피난처
는 오직 하나님뿐"은 눈물로 읽었지요. 몇년
을 들어오던 목사님의 육성을 그대로 본당
에 앉아서 듣는 것처럼 은혜가 되었어요.

이 외로운 남의 나라 생활에 마음이 쾅쾅
얼어 붙어 있었는데 인자하신 목사님께서
직접 찾아 주셔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
며 용기주시고 힘주시며 녹여 주신 것 같아
요. 감사하다는 말씀 한 마디없이 계속 묵묵
히 받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큰 선물들이기

❀ 해외의 충현의 가족이 보내온 편지 ❀

몇년을 들어오던 목사님의 육성을 그대로 본당에 앉아서 듣는 것처럼 은혜가 되었어요.

받을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움이 크던지 죄송스럽기까지
하답니다. 후에 본교회에 다시 돌아가 열심히 일하며 보답하
리라 다짐해 보며 한 활자도 놓치지 않고 유익하게 이용하
며, 기도제목으로 함께하며, 치뤄진 모임이나 은혜스러운 행
사에도 빠진 것(참석치 못함)을 애석해 하면서 읽는답니다.

에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펜을 들어 인
사말씀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진 충현 가족들
에게 말씀을 챙겨주시니 충현교인 된 것에
 긍지를 가지며 자랑스럽습니다. 일터에서
집에 돌아와서 충현패가 벽에도 테이블에도
붙어있는 것을 볼때면 마음 든든합니다. 계
속 영적으로 인쇄물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니 外地에 나가서도 아버지 집의 끝없
이 풍성한 양식을 날라다 먹는 부자집 아들

의 든든한, 두렵지 않는 기분같다고나 표현
할까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수고
하시는 손길에도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
다.

사실 떠나올 때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는
참 슬펐어요. 타국에 온다는 것은 걱정안되
고 겁도 없었는데 정든 교회를 떠나온다는
게 정말 섭섭했지요. 정든 훌륭한 교회를 다
녔었기 때문에 이곳에도 열심히 좋은 교
회가 많았지만 처음에는 등록하고 마음 불

이기가 힘들었지요. 이젠 짧은 시
간이지만 좋은 목사님 만나 잘 지
내고 있습니다.

이곳 L.A의 한인교회들에게 하
나님께서 마지막 세계선교의 사
명을 주셨어요. 즉 한국사람들을
세계에 흩으셔서 마지막 추수의 일
꾼들을 삼으신 것을 이 부족한 것
의 믿음으로도 확신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 일에 적게나마 보탬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김창인 목사님께서 예배시에 기
도하실 때마다 세계에 흩어진 충현
의 교인들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
실 때는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인가

보다 예사로 생각했는데 고국을 떠나와 보
니 얼마나 그 기도가 큰 힘이 되는지요. 본
교회에서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잘 있는
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어려운 시기에 자녀(중 2, 고1)
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 안에서 잘 자라주어,
두 아이 다 이곳에서는 명문대학에 입학했
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사업이지만 날
마다 마감시간엔 '주님 감사합니다'로 마치
는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
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떠나오기 전 구역 권사님들,
구역 장로님들, 구역원들, 전교인들의 기도
의 응답임을 알고 본교회의 기도제목들과
특히 해외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
도드림으로 사랑의 빛을 나누어 가볍게 하
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3년 11월 10일
L.A에서 이봉철·문송자 집사 드림

◆ 한해를 보내면서 ◆



김 찬 곤
(목사, 제20교구, 찬양위원회지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93년

이제 마지막 남은 달력만 넘기면 이 해도
영원한 과거로 묻히게 된다. 올해는 우리 민
족에게 있어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
년이기도 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얽혀 있던
실태를 한 울썩 풀기 위하여 노력하며, 민
족의 가슴에 눌러 있던 한과 아픔을 치유하
기 위해 노력하는 한해였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었다. 그렇기에 이들과 저향은 더욱 컸고 반
목과 질시가 따르는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
러나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일
이었다.

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Charles
A. Beard)에게 "당신이 역사를 연구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을 때 그는 다
음 네 가지를 말했다.

첫째로,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께서 어떠한 것을 멸하려 하시면 그것이 개
인이건 국가이건 막론하고 권세속에 날뛰게

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권세속에 날뛰는 개
인이나 국가의 민족을 보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들이 천천히 돌아가
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 하나님의 뜻들이
있나 없나 의심하게까지 되지만 하나님의
뜻들은 보드랍게 결코 남김없이 갈아 결국
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 내고야 마
는 것을 알았다.

셋째로,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해
오지만 그렇게 도적질해 옴으로 말미암아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
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항
상 악을 행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를 통하여
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넷째로,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 벌을 볼
수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깊어가면 이것이
다 지나기 전에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
가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민족의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를 돌아
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
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 한번
잘해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결과는 항상 마찬가지로
끝나게 됨을 확인할 뿐이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시편 90편을 통하
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인식시키며 경고하는 말씀을
보여준다. 그는 시편 90편에
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
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
다. 우리는 영원한 현재에 살
고 있지 않다. 우리의 시간은

항상 흘러간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해를 돌아다 보
면서 나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었나를 점검
하여야 한다. 우리의 역사는 모두 다 기록되
어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만족과 안위를 위
하여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거나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영원한 미
래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오늘의 문제는 내일의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로 인하여 낙망
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이

한해 동안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낙
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가?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 이라고
말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절망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쫓
겨져 나간 과거의 달력에 연연해서도 안된
다. 그러나 과거의 달력이 없다면 현재의 시
간도 없었을 것이다. 쥘 잡는 것이 매라고
하는 실용주의의 사고가 현대인들을 사로잡
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 민
족의 안타까웠던 정치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항상 멈
추지 않고 오늘도 돌고 있다. 이것은 마냥
돌고도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나
아가는 것이다. 돌아다 볼 수 있는 버팀목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마지
막 앞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
어야 한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아니 앞으로도 우리의 더러운 본색이
틈만 보이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하는 사관들임
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작은 징검다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
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과거에 매여있는 애
급의 달력을 치워버리고 보혈의 달력을 새
롭게 가는 결심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성
도들이 되자.

역사의 수레바퀴는 항상 멈추지 않고 오늘도 돌고 있다.
이것은 마냥 돌고도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돌아다 볼 수 있는 버팀목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앞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교회학교간 교류친교 도모

중등2부와 사랑부

11월 21일(주일) 주일예배를 마친 중등2부 학생 100여명이 사랑부를 방문하여 분반공부중의 어린이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평상시에는 전혀 교류가 없던터라 처음에는 서먹한 분위기였으나 함께 찬양을 부르며 율동을 하면서 특히 장애 어린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즐겁고 정다운 1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고 한 학생은 말하였다.

특히 중등2부와 사랑부에서 각각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사랑이 넘치는 한 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 다른 주일학교 간에도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하는 소망의 소리가 높다.

제직원 사진 촬영 계속

미촬영자 속히 끝내기를

교회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펴낸 제직원 사진첩에 사용할 제직원 사진 촬영의 교구별 일정이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촬영하지 않은 제직들을 위해 계속해서 촬영업무를 하고 있다. 아직 찍지 않은 제직들은 빠른 시일내로 촬영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 대상 : 원로장로, 장로, 교역자, 원로집사, 집사, 원로권사, 권사, 명예직권사, 남여서리집사
- 촬영시간 : 주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수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목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충현사진방)



추수감사절 축하행사

지난 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추수감사절 축하행사가 벌어졌다. 꼬마 사회자의 능숙한(?) 사회로 진행된 축하행사는 성경이야기, 노래극, 유치부 성가대의 찬양 순으로 진행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한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

김형선 ·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님께

살롱!!

저는 충현교회 중등3부 학생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 선교사님들이 봉사하심에 제면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꺼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저희 중등3부에서는 다른 전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 친구들은 힘은 없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꿈과 같이, 전장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선교사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지혜와 능력 주시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선교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지, 잘 몰라서 누군가 물어면 당황하곤 합니다. 저는 장래에 건축설계사가 되어 평생 민족복음화에 종사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선교사는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온 민족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후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과 지금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인지입니다. 저희들도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삼아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작은 선교사 동행 드립니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9일(월) 세계성령봉사상 시상식 설교 12월1일(수)-3일(금) 동원교회 부흥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29일(월) 에큐메니칼 학술강좌 강연 (연세대학교 루스체플)
2.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새가족들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4. 선교사님들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5. 힘써 기도하며 성령충만함을 받아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매주 금요일
가정에서 금요기도회를 가지며

할렐루야!

세계를 교구로 하나님 나라 확장사업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세계선교 위원회 지도 김양호 목사님과 하대선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전 위원님께 문안 드립니다. 또한 당회장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온 교우님들께서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따라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온 교우님들께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신다는 소식을 대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한편으론 참여치 못하는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온 충현의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이곳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으며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게 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주일에는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이곳에 이민 온 한국인 불신자 가정(8명) 주님품으로 인도하는 경사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매주 저희 가정예배 처소에서 개최되는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성경말씀을 배우며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넘쳐 남을 엿볼 수 있으며 지난 7월 9일 기도회 때는 현지인 교회 Gelsenfeld Presbyteria Church 소속 Frank Smedley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현대의 선교현황'이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온 성도가 민간 외교관으로 또는 각급 학교에 파견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키고 각오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8월 6일에는 Auckland Adisor Church's Education Commission의 Tony Scott씨를 초빙하여 '뉴질랜드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월 1회 외국선교사(현지인)를 강사로 초빙하여 이곳 선교지에서의 효과적인 선교활동에 대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교회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저희 내외는 장년부를 담당하고 딸 아이들은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등부 그리고 반주를 맡아 각각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이곳 사정을 보고 드리며 지난번 서신에 부탁드렸던 한글·영문 전도지와 편지형태의 양육교재(전도위원회 70인 전도대 교육시 사용)와 새신자 양육교재를 선별하여 보내주시면 이곳 선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충현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N.Z에서 김형선 · 한영자: 집사 올림

♡ 기도제목

1. N.Z 전역에 세움받은 한인교회들이 생명력있는 교회로써 본이 되게 하소서.
2. 성령충만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양무리를 잘 양육하게 하소서.
3. 온 가족에게 건강주시며, 언어의 장벽이 하루 속히 해소되게 하시어 현지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4. 주님 뜻에 합당한 직종과 장막을 허락하시어, 현지생활에 하루 속히 안정되게 하소서. (현재 장막이 렌트 중이므로)